



2014년 11월 24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중국 금리 인하와 시장 대응 : 숏커버와 고베타주

• 채권분석

장기침체 우려와 정책대응의 교착국면

• 계량분석

2014년 예상 순이익 전월 대비 5.2% 하향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기대감 부각되며 중화권 증시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삼영이앤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강원랜드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은행, 의류, 자동차, KCC, LG이노텍, 코오롱생명과학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4(금)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45.14	1,943.63	1,967.01	1,966.87	1,958.04	1,964.84
	등락폭		-15.37	-1.51	23.38	-0.14	-8.83	6.8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3(5)	296(6)	465(6)	379(6)	297(6)	423(3)
		하락(하한)	537(3)	523(1)	320(0)	424(4)	528(1)	369(0)
	ADR		92.54	86.73	89.60	85.83	83.60	87.38
	이격도	10 일	99.80	99.77	100.81	100.62	100.06	100.27
		20 일	100.08	99.97	101.03	100.95	100.43	100.68
	투자심리		5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15	278	251	280	339	342
	거래대금	(십억 원)	5,230	4,295	4,162	4,862	4,897	4,175
코스닥	코스닥지수		541.93	531.18	536.20	540.84	539.93	543.98
	등락폭		-5.77	-10.75	5.02	4.64	-0.91	4.05
	등락종목	상승(상한)	273(12)	296(7)	465(10)	379(17)	297(7)	590(8)
		하락(하한)	537(1)	523(4)	320(1)	424(2)	528(3)	359(1)
	ADR		94.55	87.38	89.43	87.04	86.84	91.08
	이격도	10 일	99.86	98.26	99.30	100.15	99.83	100.50
		20 일	98.27	96.53	97.64	98.69	98.75	99.64
	투자심리		5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81	344	345	365	375	387
	거래대금	(십억 원)	1,869	1,838	1,857	1,935	1,981	2,003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85.6	1,179.9	870.4	169.7	107.8	202.9	88.0	15.9	286.094
	매도	2,235.1	1,121.9	800.1	147.8	106.7	204.8	48.7	16.0	276.0
	순매수	-149.5	58.0	70.2	21.8	1.1	-1.9	39.3	-0.1	10.1
	11 월 누계	-1,264.1	698.6	828.8	611.6	136.6	348.9	-214.3	-14.4	-39.5
	14 년 누계	-1,208.7	6,155.5	-2,680.1	-1,762.7	1,003.2	-1,548.5	-687.3	-2,197.8	2,512.9
코스닥	매수	1,767.3	144.3	102.4	22.7	14.9	29.2	7.3	4.2	24.1
	매도	1,799.8	120.9	92.2	20.2	8.9	27.3	8.1	1.6	26.0
	순매수	-32.5	23.4	10.2	2.5	6.0	2.0	-0.8	2.5	-1.9
	11 월 누계	138.0	75.2	-211.3	-8.7	-2.9	27.4	-72.0	-3.6	-151.5
	14 년 누계	363.9	755.5	-94.9	-24.5	182.7	-40.0	-87.3	-29.8	-91.2

중국 금리 인하와 시장 대응 : 숏커버와 고베타주

2014년 Target KOSPI	2,070pt
12MF PER	10.01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7.8%P

- ▶ 투자전략 : 연말까지 우상향 추세 이어질 것
- ▶ 이슈 세 가지 : 숏커버링, 고베타주, 증권주
- ▶ 26일(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12월 4일(목) ECB 정책회의

**중국, ECB 정책 모멘텀
: 이머징마켓에 대한 극단적
인 부정론 제거, 달러 강세
완화될 것**

■ 투자전략 : 연말까지 우상향 추세 이어질 것

지난 주 21일(금) 저녁 인민은행이 2년 4개월만에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예금 금리는 3.0%에서 2.75%로 25bp, 대출금리는 6.0%에서 5.6%으로 40bp 내렸는데 대출금리 인하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확실히 경기부양적이다. 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예금금리 상한선도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금리는 내려가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 자금난과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한계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그만큼 중국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2년 4개월만의 금리 인하인데다 12월 4일(목) ECB 정책회의를 앞두고 QE 기대감까지 불거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드라기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금융회의에서 ‘인플레이션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산매입의 규모와 속도, 종류를 바꿔나갈 수 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머징마켓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론은 점차 제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 강세 완화 이슈다. 대표적인 약세 통화였던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캐나다 달러도 강세로 반전하고 있다.

**26일(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예정**

국내로는 26일(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후 3시 30분에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기자회견 예정이며 언론 보도로 미루어 보면 우정사업본부 증권 거래세 인하,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배당주 펀드 세제혜택,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 등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점진적 우상향 추
세 : 증권, 화학, IT 등 대형
주와 고베타주 강세 전망**

연말까지 증권, 화학, IT 등 대형주와 고베타주 중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중국, ECB 정책 모멘텀으로 시클리컬 숏커버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는 증권주에 긍정적이다. 28일(금) Black Friday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IT 업종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배당주 최선호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배당주가 최선호다.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배당 주주권 행사를 위한 연기금 5%를 완화, 배당주 펀드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배당주에 대한 중기 수급여건은 지속 우호적일 것이다. 또한 이번 중국의 깜짝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에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고민하게 하는 이슈다. 내년에도 저금리 금리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배당주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2012년 중국 금리인하
당시에도 고베타주 반등

■ 이슈 1 : 중국 금리 인하와 고베타주

이번 금리인하는 2012년 7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공교롭게도 현재 상황은 2012년 7월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중국도 금리 인하에 나서고 ECB 드라기 총재가 ‘뭐든지 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고베타주 중심으로 랠리가 펼쳐졌다.

2012년 인민은행 금리인하 후 1개월간 KOSPI200 내 종목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IT 부품, 화학, 제약, 소재 기업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음식료, 보험, 미디어 등 베타가 낮은 내수 기업들의 수익률은 부진했다. 베타가 높은 업종군이 강세를 보이고 베타가 낮은 경우 그 반대로 움직인 것은 중국의 정책 변화가 시장 색깔이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말까지 놓고 보면 고베타 강세, 저베타 약세가 유지되기보다는 업종 및 기업 자체의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다.

〈표 1〉 2012년 인민은행 금리 인하 이후 1개월 수익률 상하위 종목 (KOSPI200 기준)

Top 20	(%)	Bottom 20	(%)
한라비스테온공조	44.3 LG 이노텍	19.2 퍼시스	-11.2 무학
송원산업	36.9 대한전선	18.9 대상	-9.0 한국타이어월드
자화전자	32.7 서흥	18.4 넥센타이어	-7.4 기아차
일진디스플레이	31.5 두산중공업	17.7 SBS	-7.2 세아베스틸
코리아씨키트	28.4 한화케미칼	17.6 신세계	-5.1 후성
CJ 대한통운	26.6 대한유화	17.4 CJ 제일제당	-4.9 제일기획
한미약품	25.6 LG 화학	17.4 동부화재	-4.8 크라운제과
금호석유	25.5 풍산	16.7 삼성생명	-4.5 무림 P&P
OCI	20.9 LS 산전	15.9 강원랜드	-4.5 LG 전자
SK	19.3 코오롱인더	15.4 롯데푸드	-4.4 유한양행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2012년 인민은행 금리 인하 이후 연말까지 수익률 상하위 종목 (KOSPI200 기준)

Top 20	(%)	Bottom 20	(%)
한미약품	123.1 광동제약	66.2 한국타이어월드	-56.5 코오롱
대웅제약	108.8 송원산업	59.7 엔씨소프트	-39.8 동양기전
일진디스플레이	90.5 삼립식품	58.6 에스엘	-35.8 한라홀딩스
코리아씨키트	86.2 아모레 G	55.8 기아차	-26.5 대한유화
자화전자	85.7 서흥	55.2 락앤락	-26.5 호텔신라
모토닉	83.1 SK	53.6 세아베스틸	-26.3 두산엔진
하이트진로홀딩	83.0 빙그레	53.4 넥센타이어	-25.6 퍼시스
한국가스공사	81.0 CJ	53.1 삼성테크윈	-22.4 서연
한세실업	80.9 CJ 대한통운	52.0 일진머티리얼즈	-21.7 OCI
대원강업	66.9 LG 디스플레이	51.8 카프로	-20.6 동부하이텍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지수(MSCI AC World) 수익률을 보면 시장의 성격변화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금리인하 후 연말까지 전세계 지수는 16%나 상승했는데 금융, 산업재, 경기소비재, 소재, 헬스케어, 에너지 순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반면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통신, 필수소비재 섹터의 수익률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표 3〉 2012년 금리 인하 이후 글로벌 섹터 수익률 (MSCI 세계 지수 기준)

(%)	1M	2M	3M	연말까지
MSCI AC WORLD	8.0	7.9	10.5	15.9
Financials	10.5	9.9	13.1	26.8
Industrials	7.7	7.5	9.4	17.0
Cons Discr	5.9	5.4	9.6	17.0
Materials	7.5	4.7	6.9	16.4
Health Care	8.1	9.6	10.6	16.0
Energy	9.4	9.9	13.7	13.3
Cons Staples	7.6	9.1	10.2	12.5
T/cn Svs	8.9	11.0	11.3	9.0
IT	6.1	5.3	9.5	8.4
Utilities	6.4	4.4	4.4	5.1

〈표 4〉 2012년 금리 인하 이후 글로벌 섹터 수익률 Top 15 (MSCI 세계 지수 기준)

	1M	2M	3M	연말까지
건자재	11.8	11.7	14.4	39.6
복합금융	10.8	8.5	12.8	38.7
제지	10.3	10.9	13.4	30.0
보험	11.3	9.4	14.1	27.5
바이오	7.2	12.9	16.4	26.7
은행	10.4	10.7	13.9	26.0
미디어	10.5	11.2	16.1	24.6
인터넷SW	6.3	10.1	16.1	24.0
복합기업	9.9	12.0	14.1	20.7
자동차	4.9	3.7	6.6	20.4
전자장비	5.3	6.2	11.0	20.4
건설	10.5	7.4	9.6	19.8
섬유의복	0.2	-0.2	7.6	19.6
자동차 부품	7.0	6.0	11.7	19.4
화학	8.6	8.2	9.9	18.0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표 5〉 2012년 금리 인하 이후 글로벌 섹터 수익률 Bottom 10 (MSCI 세계 지수 기준)

	1M	2M	3M	연말까지
컴퓨터	5.7	6.4	14.4	-5.8
담배	10.7	12.2	10.4	4.0
소매	3.6	5.6	10.8	7.8
호텔레저	3.0	-0.4	2.9	8.6
항공	8.4	3.9	4.6	8.7
레저장비	8.9	10.5	11.8	8.9
상사	7.3	6.6	5.8	9.2
소프트웨어	8.6	5.6	10.1	9.4
개인용품	5.7	5.4	11.3	10.3
IT 서비스	6.1	5.2	6.6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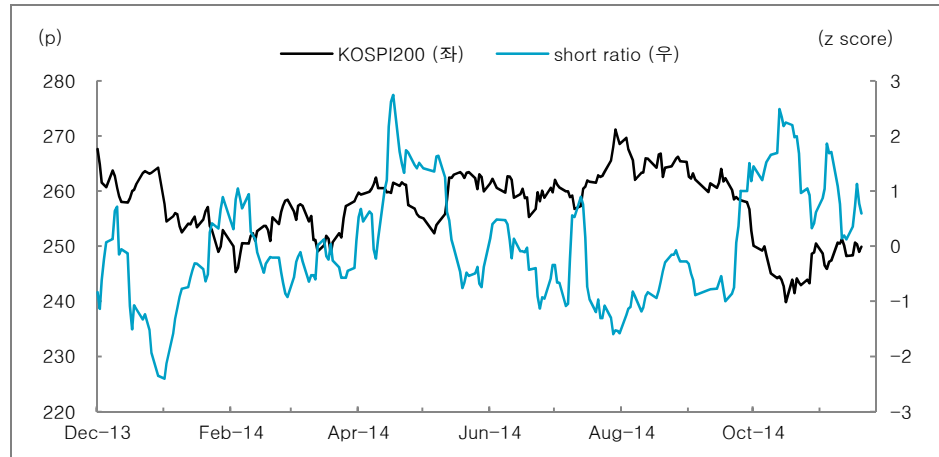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 이슈 2 : 숏커버링

숏커버링 더 지속될 것
: 조선주, 정유주, 철강주

중국의 깜짝 금리인하는 숏 커버링(short covering) 재료가 될 수 있다. 9월 이후 시장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증가했던 공매도는 10월 중순 지수가 단기 바닥을 확인하면서 점차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과거 평균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림 2] KOSPI200 공매도/거래량 비율 (5MA) -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연말에 따른 대차거래 상환 이슈나 최근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맞물리면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부진했던 숏 집중 종목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 중국 금리인하 이벤트로 이러한 흐름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특히 9월 이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공매도 집중 종목들이다. 단기적으로 해당 종목들의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9월 이후 10% 이상 주가 하락, 공매도 집중 종목 (KOSPI200, 업데이트)

코드	종목	9월 이후 공매도 (주수)	9월 이후 거래량 (주수)	공매도/거래량 (%)	9월 이후 수익률 (~11/21)
A010620	현대미포조선	1,561,647	13,788,961	11.3%	-35.1%
A010690	화신	745,349	5,878,266	12.7%	-26.7%
A030000	제일기획	4,668,643	46,227,555	10.1%	-23.5%
A012450	삼성테크윈	3,753,851	25,018,065	15.0%	-19.5%
A082740	두산엔진	749,956	6,702,028	11.2%	-19.3%
A003920	남양유업	6,634	51,380	12.9%	-17.9%
A008770	호텔신라	3,468,764	26,692,288	13.0%	-17.3%
A000210	대림산업	1,599,244	14,987,675	10.7%	-16.8%
A004000	삼성정밀화학	763,897	5,853,508	13.1%	-16.8%
A042660	대우조선해양	13,899,264	115,683,064	12.0%	-14.5%
A009540	현대중공업	2,927,891	22,176,743	13.2%	-13.5%
A018880	한라비스테온공조	2,078,890	10,770,240	19.3%	-11.9%
A139480	이마트	491,136	3,317,005	14.8%	-11.1%
A010950	S-Oil	4,273,572	21,592,159	19.8%	-10.2%
A005490	POSCO	1,390,336	11,739,392	11.8%	-10.2%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26일(수)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예정
: 증권주에 호재될 것

■ 이슈 3 : 주식시장 발전방안과 증권주

26일(수) 오후 3시 30분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이 주식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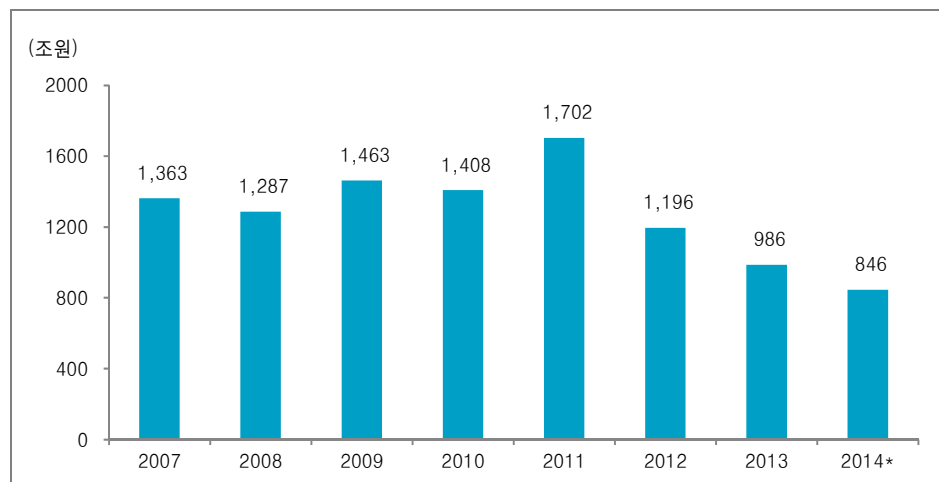
지난 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발전방안에 ‘우정사업본부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증권거래세 감면 및 폐지’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혔으나, 우정사업본부에 차익거래세를 부과한 후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 기재부가 다시 비과세 및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작년보다 358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 시장에서 받을 배자 오히려 차익거래가 급감한 것이다.

당사 파생/ETF 담당 강송철 연구원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차익거래 시장에 매우 큰 임팩트를 주는 정책이다. 차익거래 시장규모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차익거래가 45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면 4~5%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증권주에 매우 큰 호재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2년 4조 8,200억원, 2013년 3조 9,930억원, 2014년 3조 9,660억원으로 꾸준히 줄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이탈한 2013년의 거래대금 위축폭이 특히 컸다. 만약 거래대금이 2012년 수준까지만 회복된다면 20%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는 주식시장 발전방안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채권, IPO 부문의 수요기반 확충과 대체거래소 개설 요건 완화, 장외거래 시장 수요 확충, 기업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등이다. 이 역시 증권업종의 육성 및 규제 완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KOSPI 거래대금 (연간 합계, 2014년은 11월 14일까지)



주 : 2014년은 11월 14일까지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7〉 과거 인민은행 금리 인하 추이

(단위: %, %p)

		대출 기준금리		예금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인하 후	인하 폭	인하 후	인하 폭	인하 후	인하 폭
2008 년 금리 인하							
2008-09-15	대출금리 인하	7.20	(0.27)				
2008-10-08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6.93	(0.27)	3.87	(0.30)		
2008-10-15	지급준비율 인하					17.00	(0.50)
2008-10-29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6.66	(0.27)	3.60	(0.27)		
2008-11-26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5.58	(1.08)	2.52	(1.08)		
2008-12-05	지급준비율 인하					16.00	(1.00)
2008-12-22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5.31	(0.27)	2.25	(0.27)		
2008-12-25	지급준비율 인하					15.50	(0.50)
2012 년 금리 인하							
2011-12-05	지급준비율 인하					21.00	(0.50)
2012-02-24	지급준비율 인하					20.50	(0.50)
2012-05-18	지급준비율 인하					20.00	(0.50)
2012-06-07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6.31	(0.25)	3.25	(0.25)		
2012-07-05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6.00	(0.31)	3.00	(0.25)		
2014 년 금리 인하							
2014-11-21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인하	5.60	(0.40)	2.75	(0.25)		

정리: 한국투자증권

〈표 8〉 이번 주 주요 일정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美>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3.3%, 3.5%) 3분기 GDP 물가지수 (n/a, 1.3%, 1.3%) 11월 소비자대지수 (n/a, 95.8, 94.5)	韓> 주식시장 발전방안 발표 美> 10월 내구재주문 (n/a, -0.6%, -1.1%) 10월 개인소비지수 (n/a, 0.3%, -0.2%) 10월 신규주택매매 (n/a, 47.0만, 46.7만)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n/a, 1.0%) 11월 시카고 구매자지수 (n/a, 63.0, 66.2) 11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90.0, 89.4)	韓> 10월 경상수지 (억달러) (n/a, n/a, 762.5) 美> Thanksgiving Day 휴장 유럽> 11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1.6)	韓> 10월 광공업생산 MoM (n/a, 0.8%, 0.1%) 美> Black Friday 유럽> 11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3%) 日>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3.0%, 3.2%) 10월 예비 광공업생산 (n/a, 2.9%, -0.5%)

정리: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중국 HSBC 제조업 PMI가 50.0으로 예상치를 미달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보다 13원이나 오른 1,113원을 기록하면서 수출주들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일본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 소식에 엔/달러 환율이 118엔을 돌파하면서 현대차(-6.8%)는 큰 폭으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주도 대형주 강세, 중소형주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다. 롯데케미칼(+7.0%), SK 이노베이션(+3.4%)이 강세를 이어갔고 현대중공업(+5.1%)은 삼호중공업의 KCC 지분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다. 삼성SDS(+22.1%)는 MSCI와 FTSE 특별편입으로 외국인/연기금 매수세가 몰리며 40만원에 마감했다. 반면 KCC(-9.8%)는 현대중공업 지분 취득에 우회지원 우려로 약세를 보였고 삼성중공업(-8.4%)과 삼성엔지니어링(-14.0%)은 합병 무산에 하락했다.

지난 주에는 증권(키움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화학(한화케미칼) 등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조정된 반면 하드웨어(일진디스플레이), 음식료(롯데푸드, 농심, 빙그레) 등의 EPS는 하향 조정되었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을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1.39	4.85	-29.45	-1.68	-21.21	9.78	0.60
소재	0.01	-3.39	-15.19	-0.54	-8.92	11.33	0.73
화학	0.62	-1.74	-24.93	0.42	-6.84	11.41	0.86
금속 및 광물	0.94	4.63	21.81	0.00	1.22	12.19	1.30
산업재	-4.02	-3.56	-10.32	-0.49	-46.86	14.89	0.97
자본재	-4.78	-4.16	-15.18	-3.91	-49.23	13.14	0.84
건설	-6.13	-5.47	-0.12	-0.69	-28.96	12.20	0.81
조선	-3.09	0.43	-47.66	-7.17	-238.77	21.34	0.66
상업서비스	2.41	-10.54	0.17	0.00	-3.33	19.14	2.62
운송	-0.93	1.78	27.64	68.73	-34.46	29.73	1.91
경기소비재	-1.03	-1.65	-6.05	-0.07	-2.68	8.30	0.99
자동차/부품	-2.34	-0.83	-16.69	0.03	-2.95	5.86	0.78
내구소비재/의류	0.02	-3.75	64.39	-0.44	-0.71	21.45	2.65
소비자 서비스	0.43	0.19	18.72	-0.31	-0.92	18.30	3.03
미디어	1.77	-8.65	-27.57	0.15	-13.33	15.00	1.49
유통	2.22	-1.38	-19.89	-0.57	-0.87	11.45	0.74
필수소비재	0.62	-1.22	16.93	-0.42	-3.20	17.65	1.72
음식료/담배	0.78	-2.92	18.63	-0.35	-3.10	16.84	1.55
생활용품	-0.66	10.24	10.04	0.00	-1.23	23.47	4.79
의료	-0.42	-5.61	10.81	0.00	-1.21	17.52	1.57
제약/바이오	-0.41	-5.71	10.83	0.00	-1.22	17.52	1.57
금융	-1.38	1.72	1.83	0.70	2.10	10.77	0.72
은행	-2.66	-1.26	-6.18	-0.05	0.84	8.58	0.57
기타금융	-4.61	-9.12	-11.36	0.00	-25.49	6.79	0.09
증권	-0.86	4.72	26.44	9.38	18.83	14.17	0.83
보험	0.86	6.49	7.54	-0.02	-2.18	13.81	1.07
IT	1.44	8.07	-4.42	0.19	0.34	10.98	1.27
소프트웨어	6.32	4.53	10.30	-0.43	0.33	33.60	5.48
하드웨어	1.35	10.76	-23.19	-1.63	5.38	20.44	1.04
반도체	0.37	8.63	-6.89	0.29	1.02	8.78	1.07
디스플레이	0.77	9.23	24.10	-0.20	0.91	9.77	0.98
통신서비스	2.67	7.96	14.56	-0.37	-4.24	12.36	1.15
유틸리티	0.47	-3.72	22.16	-0.29	2.21	4.94	0.57

주 : MKF500 업종 분류 기준, 전주 목요일 증가 기준 업데이트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69개 업종 중 상승률 상위를 기록한 업종은 섬유/직물(+2.54%), 파이프라인(+2.48%), 수도(+1.93%), 의류(+1.72%) 그리고 반도체(+1.68%)이었고, 상승률 하위 업종은 석탄(-2.91%), 호텔/카지노(-2.81%), 조선(-2.48%), 철강(-1.72%), 그리고 인터넷(-1.64%) 등이었다.

지난 주 가장 주목할만한 업종은 의류 업종이다. 11월 28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류 등 소비재 업종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미국 소비심리 지표와 유가 약세로 인한 소비여력 증가로 인해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나이키 등 스포트 의류와 마이클 코어스, 폴로 랄프로렌, 스티븐 매든 등 미국 패션 업체 모두 평균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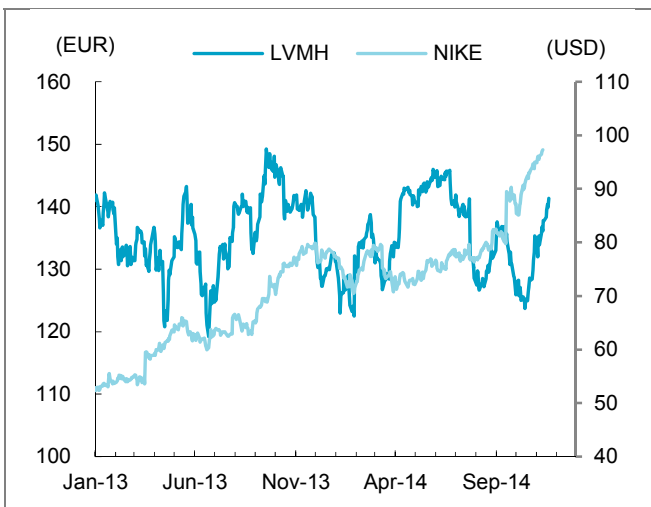
한편 섬유/직물 업종 내에서는 도레이산업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IT 소재, 섬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레이산업은 세계 최대 탄소섬유 제조업체인데, 최근 보잉과 도요타가 신모델 내장재로 도레이산업의 탄소섬유를 채택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 탄소섬유의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도레이산업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섬유/직물	2.54	석탄	-2.91
파이프라인	2.48	호텔/카지노	-2.81
수도	1.93	조선	-2.48
의류	1.72	철강	-1.72
반도체	1.68	인터넷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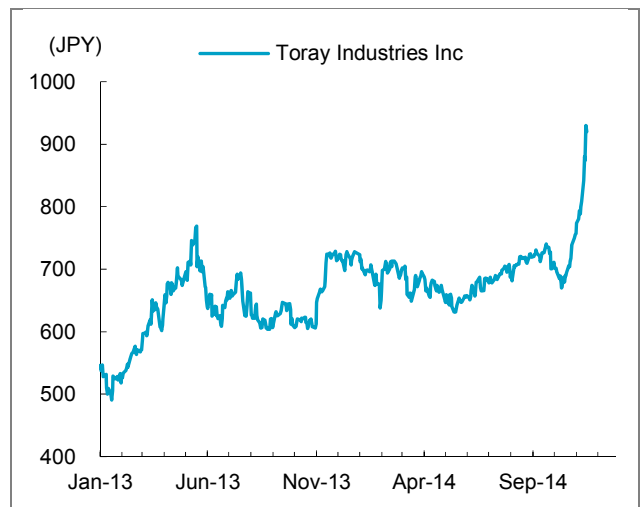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LVMH와 나이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도레이 산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장기침체 우려와 정책대응의 교착국면

■ 글로벌 재정긴축으로 초래된 총수요 부족

2015년에도 글로벌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을 긴축하고 통화완화 정책은 유지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했다. 저금리에도 민간의 소비는 살아나지 못하면서 정부지출의 축소가 바로 글로벌 총수요 부족으로 직결됐다. 내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재정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총수요 증대에 기여했던 중국의 내수성장세도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제의 총수요부족 문제는 2015년에도 뚜렷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 글로벌 과잉저축 속, 연준의 금리인상 시도

경기와 물가라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금리가 오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미 연준은 중기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2015년 하반기 연준이 제한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ECB와 BOJ는 향후 상당기간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의 투자율 감소가 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의 자금수요는 줄어들었다. 우리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경상흑자 규모가 세계 6위인 한국의 금리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 장기 저성장 우려와 한국의 정책대응

우리는 201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로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총수요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과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부족해진 총수요를 금리인하로 모두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높다. 우리는 정책당국의 정책대응이 경기순환적인 부양에서 점차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높이고,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내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구조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모형을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2015년 시장금리가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2014년 예상 순이익 전월 대비 5.2% 하향

■ 3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2014년 예상 순이익 하향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당사 유니버스 종목의 2014년 예상 순이익은 75.3조원으로 전월 대비 5.2% 하향됐다. 이익 하향은 주로 3분기 실적 부진이 연간 순이익 추정치를 끌어내리며 발생한 것으로, 조선, 석유정제, 자동차/자동차부품 업종 등이 주도했다.

■ 디스플레이, 인터넷/소프트웨어, 화학, 생활용품, 운송 업종 순이익 상향

11월에는 LG디스플레이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대형TV패널 가격 안정과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디스플레이(+3.8%)와 화학(+2.4%) 업종의 예상이익 상향을 이끌었다. 인터넷/소프트웨어와 생활용품 업종은 엔씨소프트와 아모레퍼시픽의 양호한 3분기 실적에 힘입어 예상이익이 각각 3.8%, 1.7% 상향됐다. 운송업종 역시 유가와 환율 하락에 힘입은 3분기 실적 개선으로 2014년 예상 적자 폭이 축소됐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3분기 적자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업종 전체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돼 조선업이 유니버스 전체 예상이익 하향 폭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석유정제 업종은 정제마진 악화와 유가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으로 인한 S-Oil의 3분기 실적부진으로 2014년 예상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자원개발업종 역시 3분기 실적부진이 반영되며 예상이익이 27.1% 하향됐다.

■ 12개월 예상 PER 10.0배, PBR 0.96배

2014년 11월 21일 종가(KOSPI 1,964.84) 기준 12개월 예상 PER은 10.0배, PBR은 0.96배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정책기대감 부각되며 중화권 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유동성 공급, 자본시장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1.4% 급등
- ▶ 홍콩H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본토 정책기대감 부각되며 0.7% 상승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0.4% 상승
- ▶ VN지수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부각, 마진거래 제한 소식에 0.9% 하락

상해종합 1.4% 급등
증권, 보험, 미디어, 리테일,
은행 등 금융주 반등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2,486.8p로 1.4% 급등하며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다. 오전 장에는 다 음주부터 있을 IPO 수급 부담에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에 들어 강세로 전환하며 상승 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은 1,978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31% 대폭 증가했다. 한편 후강통 소진율은 19%로 직전일과 비슷했다. 연말 자금경색에 대비해 인민은행이 SLO(Short-term Liquidity Operation)을 통해 시중 은행에 500억위안의 유동성을 제공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강화됐다. 또한 장마감후에 있을 증감회의 정례 회의에서 IPO 발행체제를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데 관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 이란 소식에 증권주들이 급등하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그 외, 정부가 2번째 자유무역구 시범지역을 광둥, 복건 및 천진으로 승인했다는 루머에 관련 테마주들도 상승했다. 증권(7.4%), 보험(2.9%), 미디어(2.7%), 리테일(1.9%), 은행(1.7%), 부동산(1.5%), 소프트웨어(1.4%), 유틸리티(1.4%), 소비자서비스(1.2%), 소재(1.1%), 통신(1.1%), 자동차 및 부품(1.1%), 에너지(0.8%), 식음료(0.8%) 등 모든 업종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0.7% 상승
보험, 에너지, 소재, 은행 등
대부분 강세

홍콩H지수는 10,447.2p로 0.7% 상승하며 본토 증시 강세에 동조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소폭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후반에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로 전환했다. 연말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본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됐다. 또한 증감회에서 IPO 등록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증권주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해통증권(6837HK)은 직전일의 강세에 이어 금일 5.5% 급등했다. 보험, 에너지, 소재, 은행, 자동차 등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 0.4% 상
승, 금융, 유틸리티, 소비재
등 관련 종목 강세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4% 상승하며 5,100선을 다시 상회했다. 해외 주요기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장 오전에 약세가 우세했으나 이후 반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강세로 전환했다. 국제 금속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금속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그 외 실적 기대로 금융, 유틸리티, 소비재 등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9% 하락
가스, 전력, 부동산 등 관련
종목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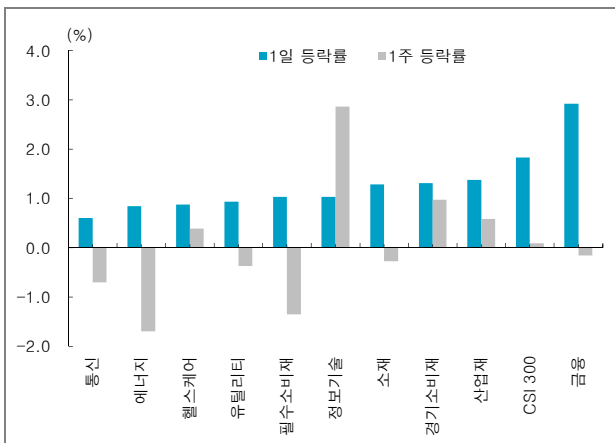
VN지수는 하루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0.9% 하락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며 600선에 근접했으나 이후 매물 출회로 반락했다. 11월 주요 지표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 또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주식투자 대출비율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약세로 작용했다. 담보외국인은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해 가스, 전력, 부동산 등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최근 상승폭이 컸던 투기성 중소형주도 하락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인민은행, SLO를 통해 시중 은행에 500억위안 유동성 공급 루머 은감회, 자산유동화 증권 사업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국무원, 2자녀 초과 출산에 대한 벌금액이 해당지역 인당평균수입의 3배 초과 말것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15년 CPI 상승률 4.5% 전망
인도네시아	크레딧 스위스, 2015년 경제성장률 5.2% → 5.0%로 하향 조정
말레이시아	10월 CPI 상승률 YoY 2.8% (직전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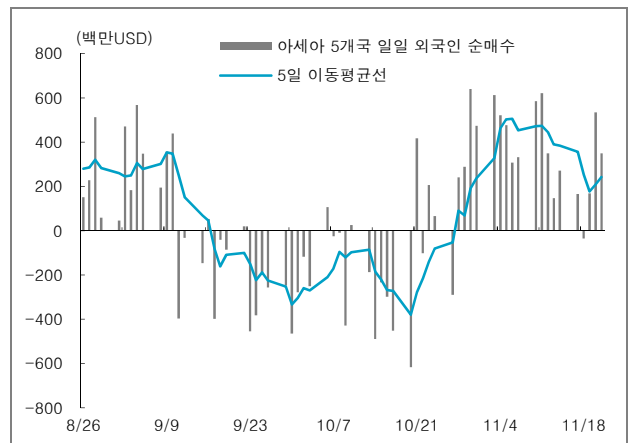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21(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486.79	1.39	0.32	2.75	17.52
홍콩 H	10,447.18	0.65	-2.92	-2.87	-3.41
중국 차스닥	1,504.83	0.69	4.41	-0.56	15.36
인도 SENSEX	28,334.07	0.95	1.02	1.68	33.84
인도네시아 JCI	5,112.05	0.36	1.24	0.44	19.60
태국 SET	1,577.67	0.57	0.11	-0.41	21.48
베트남 VN	588.03	-0.89	-2.05	-2.13	16.53
MSCI 이머징마켓	990.10	0.02	-0.07	-2.56	-1.26

주: 21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엔저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

- 미국증시는 유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신호가 지속되며 글로벌 경기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소비심리 회복 및 부동산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1,96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차익실현 매도에도 불구하고 사모, 금융투자 등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43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회사 해태제과의 신제품 ‘허니버터칩’ 인기에 힘입어 크라운제과가 연일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견고한 실적 개선과 신약 모멘텀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코오롱생명과학이 급등. 애플의 ‘아이폰6’에 이어 구글의 ‘넥서스6’가 미국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관련 제품 판매 증가 기대감에 슈피겐코리아가 강세를 보이며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모바일 게임 ‘아이러브커피’ 개발한 업체인 파티게임즈는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 또한, 워런버핏이 무선충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무선충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유상증자를 실시한 한진칼은 외국계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였으며, 2차전지 제조 업체인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 후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종목/테마	내 용
크라운제과(005740) ▶283,000(+9.69%)	‘허니버터칩’ 인기에 연일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해태제과의 신제품 ‘허니 버터칩’이 출시 석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매출 50억원을 돌파하고,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큰 인기를 얻으며 연일 급등세 - ‘허니 버터칩’은 지난 10~11월 편의점 스낵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출시 110일 만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코오롱생명과학(102940) ▶51,200(+7.11%)	고성장 전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사업인 일본향 원료의약품 수출 회복과 충주 신공장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에 급등세 - 아울러, 2016년 초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임상 3상 중인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티슈진-C’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파티게임즈(194510) ▶29,900(상한가)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전문 게임 회사로서 공모가 대비 100% 상승한 시초가를 형성하며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상한가 - 대표작은 카페 경영 게임 ‘아이러브커피 for Kakao’와 레스토랑경영 게임 ‘아이러브파스타 for Kakao’ 등이 있음
무선충전 관련주	워런버핏의 투자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가 P&G로부터 배터리 회사 듀라셀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워런버핏이 듀라셀의 무선충전 사업부문에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듀라셀은 스타벅스와 함께 무선충전 시장을 확장할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크로바하이텍(043590, +10.10%), 캠프로닉스(089010, +8.91%), 한솔테크닉스(004710, +6.38%), 동양이엔피(079960, +5.51%), 와이즈파워(040670, +4.7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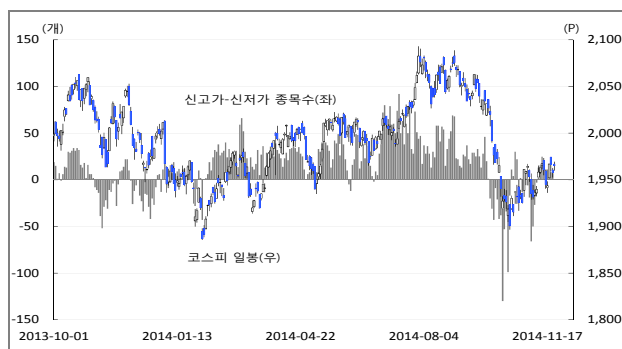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일본,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이며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증시는 상승세를 보임. FOMC 회의록을 통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으나, 회의록 내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국내 증시는 환율 변동성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후강통 시행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감에 주초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는 1,964P로, 코스닥은 543P로 한주를 마감
- 중국 FTA 타결 및 후강통 시행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에 차이나하오란, 중국원양자원 등 중국국적 국내 상장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와이저엔터테인먼트로 피인수된 휘닉스홀딩스와 홍콩의 주나인터내셔널로 피인수된 초록백이 강세를 보임
- 아울러,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향후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신고가를 경신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유가증권	소재	철강금속	고려제강	57,300	7.7	필수소비재	화학	보락	3,215	1.6
	소재	화학	한솔케미칼	37,400	13.5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휘닉스홀딩스	9,080	79.1
	금융	보험업	삼성화재	304,500	2.9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대유에이텍	2,140	19.6
	산업재	기계	현대엘리베이터	63,000	24.5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방림	27,000	11.1
	산업재	운수창고	한국공항	38,150	21.1	경기소비재	미분류	삼양통상	86,700	4.5
코스닥	IT	반도체	테크윙	8,870	7.5	산업재	미분류	웨이포트	763	58.0
	IT	일반전기전자	아큐픽스	1,480	18.4	산업재	환경	자연과환경	1,595	20.8
	IT	반도체	OCI머티리얼즈	55,600	8.2	경기소비재	오락문화	초록백	2,530	17.1
	IT	인터넷	아이디엔	5,420	12.4	경기소비재	미분류	이스트아시아홀딩스	1,780	28.5
	소재	화학	한일화학	10,150	11.2	경기소비재	인터넷	에스24	7,300	0.8
	소재	미분류	차이나하오란	2,750	51.5	경기소비재	화학	제닉	22,850	5.8
	금융	기타서비스	NICE평가정보	5,28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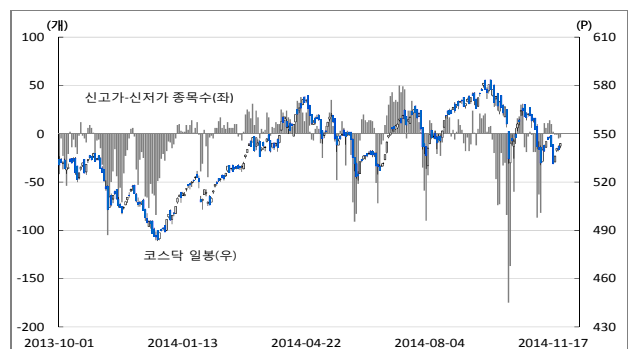
주) 상기 종목들은 11월 21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자료: Koscom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개 종목

- 신규 편입 종목

삼영이엔씨 (065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비가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어선 감척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리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원, 십억원, 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2013. 12A	44.9	9.4	7.7	873	9.8
	2014. 12F	45.8	9.3	7.8	890	

- 편입 제외 종목: 태광(기간경과 및 시세부진으로 제외 -14.0%)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73,800 (-5.6)	78,200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삼성화재 (000810)	304,500 (+7.4)	283,500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위권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실현 - 시장 지배력, 규모의 경제, 판매채널 다변화 및 효율성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성장 여력 상존 -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금호타이어 (073240)	10,900 (+4.3)	10,450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가격 하락, 수익성 개선, 전환사채 전환과 대우건설 지분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원재료 투입단가 하락, 가동률 상승, 이자비용 절감 등에 따른 턴어라운드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요코하마 고무와의 제휴에 따른 시너지, 미국 내 중국산 타이어 규제 가능성,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 등의 이슈들도 주목할 필요
LG화학 (051910)	208,000 (+7.2)	194,000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성수기 효과 부재로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함에 따라 실망 매물이 급격히 출회되며 주가가 2011년 이후 이익 감소기의 PER 밴드 하단을 이탈 - 전지사업부문의 이익 증가와 정보전자소재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 - 2015년 이익 회복, 증설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 중대형 전지의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유한양행 (000100)	172,000 (-5.5)	182,000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의약품은 견고한 성장 유지, 특히 시장 안착에 따른 마케팅 비용 안정화 효과로 이익 개선 예상 - 고성장 지속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 수출은 고객사의 미국 허가 관련 상업화 매출 확대 기대, 중장기적으로도 외형/이익 성장은 API 사업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화학, 삼성화재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삼성화재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강원랜드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강원랜드 (035250)	33,300 (-4.9)	35,000 (10/14)	1,495	515	402	1,982	16.8
			- 테이블과 슬롯머신 증설효과, 안정적인 VIP드롭액 성장과 겨울 스키시즌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수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워터월드 착공을 통한 복합리조트 사업 마무리, 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성장성 제고 가능성, 실적 안정성과 배당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한국전력 (015760)	45,400 (-8.2)	49,450 (10/14)	58,032	6,333	3,073	4,932	9.2
			- 3분기 영업이익이 3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5조 1,044억원, 3조 1,759억원으로 추정. 매출액은 5.9%, 영업이익은 105% 증가 전망				
			-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 당분간 요금인상 효과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2016년까지 원전이 매년 1기씩 추가되는 등 전력수급여건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전망				
LG생활건강 (051900)	611,000 (+22.2)	500,000 (08/13)	4,639	517	363	21,759	28.1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2분기 실적은 개선세로 전환, 장기적인 이익 개선 시그널 확인				
			- 2분기 역성장률 기록한 음료사업은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예상				
			- 실적 부진, M&A 기대감 약화 등과 관련한 주가 선반영 과정은 일단락, 내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NAVER (035420)	763,000 (-3.0)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39.6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전자 (005930)	1,223,000 (-6.0)	1,301,000 (02/17)	209,159	29,766	25,187	166,768	7.3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7				
SK텔레콤 (017670)	283,500 (+24.6)	227,500 (01/15)	17,399	1,888	1,784	25,155	11.3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삼성전자, 한국전력, NAVER, LG생활건강, 강원랜드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

■ 금감원,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은행권 추가부담 약 2,500억원 제시

금융감독원은 2014년도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25개사로 전년대비 11.6%(13개) 증가했다 한다. 제조업이 76개로 전년(53개) 대비 43.4%(23개)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49개로 전년(59개) 대비 16.9%(10개) 감소했다. 제조업에는 전자부품, 플라스틱제품, 기타 운송장비 업종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은 경기민감업종인 부동산업,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오락및레저서비스업이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경영실적 악화를 경기회복 지연과, 비제조업 중 오락/레저서비스의 부실감소는 전년도의 골프장 대규모 구조조정 덕분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추가충당금 부담을 2,526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9월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선정 기업(125개)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총 1조 4,069억원이며, 자산건전성 재분류로 은행권은 약 4,854억원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데, 3Q 결산일이 9월말에 2,328억원을 이미 적립하였으므로, 향후 2,526억원의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은행권의 BIS비율은 0.02%p(14.18%→14.1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했다.

■ 중소기업대출 중 당사 유니버스 비중은 72%이고, 이미 4Q의 계절적 상승을 가정 중

은행(지주)별 대손충당금전입 부담은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전일 각 은행에 문의한 결과 유니버스 전체의 대손부담은 기존 추정에서 크게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개별 은행 우리 가정 수준에 엇갈릴 수 있는 점이 리스크이긴 하지만,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과 개별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기반을 기준으로 제시한 종목별 의견에 의미 있는 변화를 제공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은행들이 늘려가는 상황에서 주의 깊은 관찰 및 평가를 거쳐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기존 추정에서 대손충당금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미 우리는 4Q 이익 전망에 있어 당사 유니버스 은행(지주)의 대손충당금전입액 부담을 총채권대비 55bp로 연중 가장 높은 수준을 가정했다. 3Q 대비로는 10bp 가량 높다(1Q 43bp, 2Q 51bp, 3Q 45bp). 회기 말에 집중되는 건전성 유지 및 강화 차원의 경영진 판단 및 감독당국의 지침을 막연하게나마 반영하는 차원이다. 현재로써는 우리의 가정과 금감원이 제시한 추가 부담의 차이점을 구분해 수익추정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은행권의 추가충당금 부담 2,526억원은 (1) 신용공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고, (2)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했다. 편의상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여신 분포가 전체 중소기업대출 분포와 일치한다는 가정 아래, 충당금 부담 범위를 당사 유니버스 은행(지주)로 좁혀 재계산하면 추가충당금 부담은 1,810억원(중소기업여신 508.6조원(2014.6말) 중 당사 유니버스 364조원으로 72%)이다. 당사 은행(지주) 연간 합산세전이익대비로는 1.9%, 3Q 합산세전이익 2.4조원 대비 7%, 그리고 4Q 세전이익전망 대비 9%이다.

은행(지주)별 부담 수준에 대해 가늠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의 경우 4Q 중 통상적 월별 대손충당금 수준에서 약 20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결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 전망과 비교하면 약 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사에 대한 현재 우리 추정은 긍정적 편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은행(지주)은 부담이 없다는 전망을 제시한 곳도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 전망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지만, 개별 은행(지주) 수준에서 10% 내외의 세전이익 변화는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라면 분기별 이익 전망의 변동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에 분기수익추정을 조정하는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의류: 수출 의류주, 환율 영향 점검

■ 원화 약세, 수출 비중 높은 의류 업종 영향은?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적 영향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 속도는 둔화될 수 있으나 레벨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류 업종은 해외 사업 영업이익 기여도가 60% 이상이다. 해외/현지 생산이 대부분 이루어져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환율 노출도는 long position으로 원화 약세는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3분기 말 대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4.7%, 저점 대비 9% 상승했다. 원/위안화 기말 환율도 전분기말 대비 4.8%, 저점 대비해서는 9.8% 상승했다. 원화 약세는 의류 OEM에 가장 긍정적이고, 중국 사업을 영위하는 베이직하우스나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휠라코리아에도 긍정적이다.

■ 2015년 원화 약세 긍정적 영향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베이직하우스> 휠라코리아 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의류 OEM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 지역 현지 환율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의 현지 환율 약세도 긍정적이다. 원/위안화 환율 상승은 베이직하우스의 원화 환산 매출 및 이익을 증가시킨다. 휠라코리아는 진출국이 다양하나 해외 비중이 약 80%이고 달러 노출이 커 원/달러 약세는 소폭 긍정적이다. 당사 환율 가정이 2015년 평균 1,015원/달러에서 1,081원/달러로 상향되었다. 우리는 해외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실적이 2015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의류 OEM의 경우 2014년 진행된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과 생산성 개선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만회했는데, 2015년에는 환율 변수도 우호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한세실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론적으로 각각 3.6%, 2.4% 증가하고, 영원무역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 1.6% 증가한다. 베이직하우스는 원/위안화 환율이 1% 상승시 영업이익이 1% 증가하고 휠라코리아는 80%의 해외 이익 기여도를 감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시 영업이익은 0.7%~0.8% 증가한다.

■ 대선진국 의류 수출주는 영업 환경과 경쟁 상황도 우호적

대 선진국 의류 수출주는 영업 환경과 경쟁 상황도 우호적이다. 동남아 의류 OEM은 미주 소비 경기 회복, 유럽 지역에서의 아시아 소싱 증가, 중국 경쟁력 약화가 긍정적이다. 휠라코리아는 휠라 브랜드가 미주 스포츠 신발 시장 호조 속에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베이직하우스의 중국 사업은 출점 속도에 비해 매출 회복이 더디고 시장 내 경쟁도 다소 심화되었다. 그러나 금년 부정적이었던 환율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고 신규 브랜드 안착, 판관비 부담 완화에 따른 영업 회복 속도가 향후 관전 포인트이다.

■ 수입 사업 비중 높은 내수 패션 업체에 일부 부정적이나 영향은 제한적

참고로 수입 사업을 영위하는 내수 패션업체에는 일부 원가 부담 요인이다. 수입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는 신세계인터내셔널로 매출의 약 47%를 차지한다. 한섬은 2015년 수입 사업 비중이 약 20%, LF도 수입 사업 비중이 10~15% 내외로 추정되어 소폭 부정적이다. 그러나, 패션업체의 경우 수입 원가보다는 소비자배수와 할인율 영향이 더욱 크고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믹스 개선이 중국시장 성장 둔화 상쇄할 전망

■ 믹스 개선 가속화

중국 자동차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월과 10월 승용차시장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6.4%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전체 시장환경은 믹스 개선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증가율 둔화가 일부 완성차업체의 일시적인 공급차질에 기인한 부분도 있어 LMC Automotive는 중국시장이 15년 전년대비 8.3% 증가해 14년 예상인 7.1%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중국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시작된 믹스 개선도 가속될 전망이다. 이에 현대와 기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250,000원(12MF PER 8배 적용, 과거평균 10% 할인)과 68,000원(12MF PER 7배 적용, 업종평균 20% 할인)을 유지한다.

■ RV와 고급 세단 판매 강세

시장 증가율 둔화는 소형급 세단의 판매 감소 때문이다. 10월 A와 B 세그먼트 세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6.1%나 감소했고 C1과 C2 세그먼트는 각각 0.1%, 6.3% 감소했다. 반면 SUV와 MPV 판매는 각각 40.1%, 43.3%로 급증했다. D와 E 세그먼트 판매도 19.5%, 25.4%나 증가했다. 두드러진 믹스 개선은 1) 세컨드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 신차등록 규제가 고급 승용차 수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12년과 13년 SUV 시장이 전년대비 25.5%와 49.4%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에도 1~10월 누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3.7%나 증가했다. 하지만 SUV의 승용차 내 비중이 아직 19.8%에 불과해 향후에도 견조하고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14년 1~10월 누적 중국 승용차시장 판매는 1,586만대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했다.

■ LF와 Compact SUV 15년 1분기 중국 출시

신모델(현대 ix25 compact SUV, 기아 K4) 효과로 인해 현대, 기아 양사 합산 중국 판매 증가율이 9월부터 상승하고 있고 믹스 개선도 재개됐다. 10월 중국 합산 판매는 신모델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150,148대를 기록하며 1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의 LF Sonata가 15년 1월, 기아의 KC compact SUV가 3월에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 중국 판매 강세와 믹스 개선 가속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CC(002380)

매수(유지)

목표가: 680,000원(하향)

종가(11/20): 511,000원

현대중공업 지분 매입 계획 공시, 관련 리스크는 절정을 지나...

■ News: 현대중공업 지분 매입 계획 공시

전일 KCC는 보유한 수원 부지 4.2만평 중 1.3만평(43,424㎡)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고 현대중공업 지분 3.2% 취득 계획을 공시했다. 매각가는 3천억원, 현대중공업 지분 취득 예상가액 역시 3천억원이다. 매각차익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지분 취득 관련, 매도 주체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측은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공시했다.

■ Implication 1) Captive 위주의 비즈니스 구조, 공급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

KCC는 매출의 절반 가량이 현대중공업/현대차/KCC건설/현대산업 그룹 등으로 captive 기반의 비즈니스 구조다. 주요 고객사들의 영업상황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장기간 KCC의 손익 변동성은 크지 않았다. 이는 ① 진입장벽 높은 핵심상품 위주로 EBITDA 마진 두자릿수의 영업 원칙을 고수해 왔고, ② 주요 매출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급자의 교섭력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KCC는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산업, 현대중합상사, 쌍용차, 벽산, 한라 등 장부가 총 7,005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말,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지분 17.0%를 취득하며 거래가 없던 삼성그룹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건자재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소량이지만 삼성중공업의 도료 매출도 발생하고 있다. 즉, 주요 매출처나 협력사의 지분 취득은 KCC의 영업 전략 중 하나로 기능해 왔다.

■ Implication 2) 현대중공업 지분, 저가에 전략적 매입으로 판단

KCC 입장에서는 저가에 현대중공업 지분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 현대중공업 지분 3%를 주당 24.5만원(전일 종가 117,500원)에 매각하고 제일모직 지분 17.0% 매입했다. 올해 12월, 제일모직 지분 6.0%를 구주매출하며 약 1,300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3분기 1.93조원의 사상 최대 영업손실 시현했으나 클린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제 턴어라운드 레벨이 문제지, 바닥 확인은 했다고 판단한다. KCC는 2000년 현대중공업 지분 8.2% 매입 후 2010년 1.5%, 2012년 3.3% 매각으로 지분율은 3.0%까지 내려갔다. 이번 매입으로 지분율은 다시 6.25%까지 상승한다. 5% 이상의 지분율(3대 주주)로 영업에 있어 협상력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다.

■ Risk) 현대중공업 지분의 매도 주체 파악되지 않아

현대중공업 지분의 매도자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사측은 장중 매수 혹은 시간외 블록딜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자사주나 현대미포조선의 보유지분(7.98%) 일부 매입이라면 cash 지원의 의욕이 커질 수 있어 지배구조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딜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3,246	199	445	45,384	36.5	363	6.5	9.6	0.6	9.0	2.7
2013A	3,233	232	248	25,297	(44.3)	389	18.5	12.2	1.0	5.0	1.7
2014F	3,388	277	223	22,719	(10.2)	435	22.5	12.0	1.0	4.3	1.6
2015F	3,528	326	259	26,391	16.2	487	19.4	10.8	1.0	4.9	1.6
2016F	3,791	364	287	29,343	11.2	525	17.4	9.9	0.9	5.2	1.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이노텍(011070)

매수(유지)

목표가: 145,000원(유지)

종가(11/20): 102,000원

2015년에도 영업이익은 30% 증가 전망

■ 4분기 영업환경은 더욱 우호적, 업종 내 Top Pick 유지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145,000원으로 유지하며 업종 내 Top Pick으로 여전히 유지한다. 동사의 주가는 7월 8일 150,0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11월 4일 82,2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하락을 이끈 주요한 우려감들은 1) 글로벌 LED 업황이 하강국면에 진입함에 따른 동사의 향후 LED 실적에 대한 우려감, 2) 4분기가 비수기임에 따른 동사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 3) 2015년에도 올해와 같은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 등이었다.

■ 4분기 영업이익은 우호적인 환율 등으로 회사가이던스를 상회할 전망

4분기는 비수기이고 또한 재고조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3분기 대비 감소한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4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1.76조원과 영업이익은 110% 증가한 607억원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4분기 예상영업이익은 3분기 실적발표 때 제시했던 회사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수치인데, 1) LED 부문에서 원가절감폭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2) A사 스마트폰의 우호적인 판매로 인해 카메라모듈 부문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고, 3)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부품 전체의 영업이익에 우호적으로 작용 중이기 때문이다.

■ 2015년 LED 영업적자는 또다시 반으로 축소될 전망

올해 하반기 글로벌 LED 업황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LED칩의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글로벌 LED 공급과잉률이 2015년에 다시 높아질 전망이고, 중국 저가 업체들의 점유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사의 LED는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적자를 꾸준히 축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1) 감가상각비의 감소, 2) 조명용 비중의 상승, 3) 하이 파워 비중의 상승 등을 통해 영업적자가 다시 반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LED 업체와는 차별화된 실적흐름이 전망된다.

■ 2015년 영업이익은 또다시 30% 증가 전망. 특히 카메라모듈에 새로운 수혜 전망

2015년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또다시 30% 증가한 4,12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1) 전반적인 수출 개선효과로 원가절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2) 카메라모듈, 터치윈도우에서 중국 휴대폰 업체들 등으로 고객 다각화가 나타나며, 3) LED 부문에서 영업적자가 더욱 축소되며, 4) 자동차용 부품도 매출액이 40%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엔 출시될 스마트폰의 경우 카메라의 스펙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의 카메라모듈 부문은 2015년 매출액과 수익성 면에서 많은 업사이드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5,316	77	(25)	(1,237)	NM	549	NM	6.3	1.3	(1.9)	-
2013A	6,212	136	16	771	NM	665	108.6	5.2	1.3	1.2	-
2014F	6,408	316	155	6,532	747.3	842	14.8	4.3	1.3	10.0	-
2015F	7,652	412	250	10,558	61.6	922	9.1	3.6	1.1	13.1	-
2016F	8,242	473	299	12,642	19.7	964	7.6	3.3	1.0	13.6	-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매수(신규)

목표가: 71,000원

종가(11/19): 48,100원

API 회복과 바이오 신약의 이중주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1,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1,000원(2015년 내재 PER 33.4배)을 제시하며 분석을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영업가치(2015년 목표 PER 20.6배, 글로벌 peer 과거 3년 평균 PER 대비 20% 할인)와 '티슈진-C'의 신약가치를 합산해 산출했다. 핵심사업인 일본향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수출 회복과 충주 신공장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은 연평균 14.9%, 영업이익은 26.4%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견고한 실적 개선과 신약 모멘텀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단기 실적 실망감에 따른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된다.

■ 2020년까지 원료의약품(API) 수요 확보로 안정적 성장 + α

동사는 2020년까지 20개 신규 API 품목의 일본 출시 스케줄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출 성장(엔화 기준 2014~2018년 연평균 23.7%)과 30%에 가까운 높은 영업마진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API 아웃소싱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품질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본 API 시장에서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좋은 track record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충주 신공장 완공으로 생산능력이 3배 이상 확대돼 추가적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 바이오 신약으로 추가 캐털리스트 장착

임상 3상 중인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티슈진-C'의 신약 가치는 주당 32,823원(성공확률 80% 가정)으로 추정된다. 높은 시장성을 바탕으로 추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중기 환자들에 적절한 치료제는 없다. '티슈진-C'는 임상 2상에서 이미 통증과 연골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1회 주사요법이라 편의성이 매우 높다. 2016년 초 국내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약 가치를 본격적으로 반영할 시점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141	22	19	3,988	50.3	26	17.3	17.8	3.3	21.0	1.1
2013A	140	18	17	3,313	(16.9)	25	19.3	15.1	2.7	15.0	0.0
2014F	134	13	8	1,200	(63.8)	25	40.1	14.6	2.5	6.1	0.0
2015F	149	17	14	2,136	78.1	30	22.5	11.9	2.2	10.4	0.0
2016F	166	21	18	2,654	24.2	33	18.1	11.5	2.0	11.6	0.2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4(금)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45.14	1,943.63	1,967.01	1,966.87	1,958.04	1,964.84
	등락폭		-15.37	-1.51	23.38	-0.14	-8.83	6.8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3(5)	296(6)	465(6)	379(6)	297(6)	423(3)
		하락(하한)	537(3)	523(1)	320(0)	424(4)	528(1)	369(0)
	ADR		92.54	86.73	89.60	85.83	83.60	87.38
	이격도	10 일	99.80	99.77	100.81	100.62	100.06	100.27
		20 일	100.08	99.97	101.03	100.95	100.43	100.68
	투자심리		5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15	278	251	280	339	342
	거래대금	(십억 원)	5,230	4,295	4,162	4,862	4,897	4,175
코스닥	코스닥지수		541.93	531.18	536.20	540.84	539.93	543.98
	등락폭		-5.77	-10.75	5.02	4.64	-0.91	4.05
	등락종목	상승(상한)	273(12)	296(7)	465(10)	379(17)	297(7)	590(8)
		하락(하한)	537(1)	523(4)	320(1)	424(2)	528(3)	359(1)
	ADR		94.55	87.38	89.43	87.04	86.84	91.08
	이격도	10 일	99.86	98.26	99.30	100.15	99.83	100.50
		20 일	98.27	96.53	97.64	98.69	98.75	99.64
	투자심리		5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81	344	345	365	375	387
	거래대금	(십억 원)	1,869	1,838	1,857	1,935	1,981	2,003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85.6	1,179.9	870.4	169.7	107.8	202.9	88.0	15.9	286.094
	매도	2,235.1	1,121.9	800.1	147.8	106.7	204.8	48.7	16.0	276.0
	순매수	-149.5	58.0	70.2	21.8	1.1	-1.9	39.3	-0.1	10.1
	11 월 누계	-1,264.1	698.6	828.8	611.6	136.6	348.9	-214.3	-14.4	-39.5
	14 년 누계	-1,208.7	6,155.5	-2,680.1	-1,762.7	1,003.2	-1,548.5	-687.3	-2,197.8	2,512.9
코스닥	매수	1,767.3	144.3	102.4	22.7	14.9	29.2	7.3	4.2	24.1
	매도	1,799.8	120.9	92.2	20.2	8.9	27.3	8.1	1.6	26.0
	순매수	-32.5	23.4	10.2	2.5	6.0	2.0	-0.8	2.5	-1.9
	11 월 누계	138.0	75.2	-211.3	-8.7	-2.9	27.4	-72.0	-3.6	-151.5
	14 년 누계	363.9	755.5	-94.9	-24.5	182.7	-40.0	-87.3	-29.8	-91.2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6,400	유통업	-10,015
은행	6,951	서비스업	-5,822
전기,전자	6,460	금융업	-5,793
KODEX 200	41,198	삼성전자	-7,888
LG디스플레이	9,069	NAVER	-5,872
롯데케미칼	8,584	한국전력	-4,697
기업은행	6,951	호텔신라	-4,077
두산중공업	5,937	LG상사	-3,86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2,251	운수창고	-13,273
화학	22,014	건설업	-10,978
유통업	8,528	은행	-6,885
삼성전자	19,627	SK하이닉스	-10,442
롯데케미칼	8,697	현대글로비스	-8,515
LG화학	8,689	KCC	-8,089
SK이노베이션	7,126	현대차	-7,280
삼성물산	6,655	기업은행	-6,88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575	기계	-1,641
금융업	681	유통업	-1,408
종이,목재	491	제조업	-367
LG디스플레이	778	호텔신라	-1,722
기아차	754	두산중공업	-1,306
롯데케미칼	622	현대건설	-751
TIGER 200	551	NAVER	-698
한솔제지	481	SK케미칼	-694

보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347	운수장비	-5,450
화학	3,226	철강및금속	-2,326
유통업	3,052	증권	-1,972
KODEX 삼성그룹	9,360	삼성전자	-3,874
LG전자	3,313	현대모비스	-2,784
LG이노텍	3,035	한국전력	-2,195
한화생명	2,924	CJ	-2,051
LG디스플레이	2,676	LG하우시스	-2,02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4,525	운수창고	-15,154
화학	50,988	건설업	-14,210
운수장비	17,259	전기가스업	-12,417
롯데케미칼	25,720	한국전력	-16,782
현대중공업	20,080	SK하이닉스	-13,597
LG디스플레이	17,958	현대글로비스	-10,621
삼성전자	15,645	현대모비스	-9,588
LG전자	13,284	NAVER	-8,018
LG화학	13,030	현대차	-7,991
KODEX 레버리지	11,688	GS건설	-7,700
SK이노베이션	9,458	KODEX 200	-7,415
LG이노텍	8,827	호텔신라	-7,269
POSCO	8,804	현대건설	-6,63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제조업	106,239	운수장비	-36,064
전기가스업	17,842	화학	-24,177
음식료품	13,036	유통업	-11,015
삼성에스디에스	104,576	KCC	-37,087
한국전력	17,248	현대차	-35,737
현대모비스	10,757	SK이노베이션	-9,679
LG생활건강	7,342	삼성물산	-9,259
LG화학	6,134	POSCO	-9,038
대한항공	5,230	LG디스플레이	-7,328
LG전자	4,974	현대위아	-5,434
KT	4,839	삼성전자우	-5,347
아모레퍼시픽	4,593	SK텔레콤	-5,303
호텔신라	4,467	삼성화재	-5,28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2,540	제약	-2,738
오락,문화	2,429	반도체	-950
IT부품	1,621	전문기술	-475
에스엠	2,458	이오테크닉스	-1,974
파라다이스	2,361	CJ오쇼핑	-1,363
게임빌	1,456	휴온스	-1,248
파트론	1,441	씨젠	-815
심텍	950	코오롱생명과학	-811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653	제약	-4,063
출판,매체복제	1,299	방송서비스	-1,524
사업지원	912	반도체	-1,490
다음카카오	3,653	이오테크닉스	-1,969
에스엠	1,150	씨젠	-1,584
파라다이스	835	CJ오쇼핑	-1,522
모두투어	745	셀트리온	-1,223
디에이치피코리아	722	휴온스	-1,00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933	디지털컨텐츠	-325
도매	335	금융	-270
IT부품	294	의료,정밀기기	-127
ISC	824	대한약품	-283
씨티씨바이오	234	한국토지신탁	-270
다음카카오	209	게임빌	-241
삼성엘엔에스	181	뷰웍스	-110
엘엠에스	153	소리바다	-8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3,491	제약	-618
오락,문화	687	도매	-350
의료,정밀기기	647	연구,개발	-270
로엔	2,798	씨젠	-844
에스에프에이	722	셀트리온	-604
휴온스	706	오스템임플란트	-526
에스엠	693	OCI머티리얼즈	-407
팬앤티테인먼트	650	코오롱생명과학	-31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9,085	제약	-7,956
인터넷	5,658	반도체	-2,068
디지털컨텐츠	5,425	방송서비스	-2,055
에스엠	5,224	이오테크닉스	-2,854
다음카카오	5,163	CJ오쇼핑	-2,523
로엔	3,810	셀트리온	-2,287
파트론	3,544	씨젠	-2,085
파라다이스	3,454	코오롱생명과학	-1,834
게임빌	3,055	휴온스	-1,618
모두투어	2,060	KH바텍	-869
컴투스	1,728	한국사이버결제	-713
에스에프에이	1,228	유원컴텍	-689
심텍	1,212	SK브로드밴드	-68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0,158	오락,문화	-6,304
인터넷	6,566	출판,매체복제	-2,335
제약	6,098	통신서비스	-1,097
컴투스	7,608	파라다이스	-5,294
다음카카오	6,289	게임빌	-3,253
CJ오쇼핑	2,284	솔브레인	-1,399
디지털조선	1,704	로엔	-1,056
셀트리온	1,673	삼화네트웍스	-982
메디톡스	1,399	한국정보통신	-957
토비스	1,324	에스엠	-936
KH바텍	1,237	이오테크닉스	-935
웹젠	1,043	네오위즈게임즈	-931
제이비어뮤즈먼트	990	차이나그레이트	-86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증권	35 일	LS산전	20 일
삼성카드	17 일	한국철강	15 일
S&T중공업	15 일	삼양홀딩스	11 일
퍼시스	15 일	CJ	11 일
한화	10 일	대한항공	11 일
LG상사	10 일	대덕전자	11 일
KODEX Japan	10 일	LG생명과학	11 일
조선내화	8 일	대우증권	10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1 일	KTH	13 일
인터파크	10 일	덕산하이메탈	13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서부T&D	12 일
모두투어	8 일	포스코캠텍	11 일
네패스	7 일	하이록코리아	8 일
심텍	6 일	휴맥스	8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다산네트웍스	5 일
메가스터디	5 일	시그네텍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CC	214,057	POSCO	177,656
현대하이스코	82,291	KCC	128,868
삼성전자	60,293	NAVER	52,356
POSCO	52,814	한국전력	38,715
롯데케미칼	43,868	SK가스	38,098
KODEX 레버리지	37,692	LG생활건강	33,119
LG디스플레이	37,427	호텔신라	28,111
LG상사	24,861	엔씨소프트	26,989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7,004	다음카카오	31,304
다음카카오	10,278	GS홈쇼핑	7,089
에스에프에이	7,693	삼성엘앤에스	3,844
파라다이스	6,949	토비스	3,139
CJ E&M	6,421	CJ오쇼핑	2,720
로엔	5,134	SK브로드밴드	2,423
인바디	4,561	오스템임플란트	2,336
OCI머티리얼즈	4,526	KH바텍	2,28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		8,497		4,716 13,213
의약품		4,329		6,343 10,672
롯데케미칼		25,720		3,140 28,860
현대중공업		20,080		834 20,915
LG화학		13,030		6,134 19,163
LG전자		13,284		4,974 18,258
LG이노텍		8,827		2,416 11,243
두산중공업		7,119		1,800 8,919
삼성SDI		6,950		1,178 8,128
기아차		1,845		3,613 5,458
한국가스공사		3,746		1,288 5,034
삼성증권		3,507		1,234 4,741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5,425		10,158 15,583
인터넷		5,658		6,566 12,224
IT부품		4,315		1,979 6,294
다음카카오		5,163		6,289 11,453
컴투스		1,728		7,608 9,336
웹젠		795		1,043 1,838
휴비츠		617		967 1,584
심텍		1,212		295 1,507
조이맥스		768		323 1,090
디에이치피코리아		626		412 1,038
셀바이오텍		706		275 981
리홈쿠펜		391		471 862
하이비전시스템		332		504 83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하나투어	37 일	팬오션	26 일
KOSEF		한국셀석유	22 일
달리인버스선물	16 일	LG상사	12 일
KOSEF 국고채	14 일	대림산업	11 일
CJ	13 일	에스원	8 일
동아타이어	13 일	삼성엔지니어링	7 일
삼성중공업	13 일	남양유업	6 일
하나금융지주	12 일	롯데제과	6 일
BS금융지주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부T&D	10 일	동양시멘트	9 일
셀트리온	8 일	OCI머티리얼즈	8 일
SK브로드밴드	7 일	모두투어	8 일
CJ오쇼핑	6 일	인터파크	5 일
STS반도체	5 일	비에이치아이	5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파라다이스	4 일
AP시스템	5 일	동국산업	3 일
아미노로직스	5 일	포스코 ICT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102,752	삼성엔지니어링	-30,733
삼성중공업	-64,978	KODEX 200	-27,994
삼성물산	-39,611	삼성중공업	-21,373
SK하이닉스	-31,158	삼성화재	-21,257
현대건설	-31,025	현대차	-20,622
GS건설	-27,666	현대차2우B	-19,373
한국전력	-26,247	현대중공업	-18,481
현대제철	-21,875	LG하우시스	-17,99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13,901	게임빌	-20,173
이오테크닉스	-10,134	파라다이스	-12,399
CJ오쇼핑	-9,779	셀트리온	-8,929
SK브로드밴드	-7,775	인바디	-4,308
게임빌	-6,781	로엔	-3,148
GS홈쇼핑	-6,639	인터파크	-2,949
KG이니시스	-4,951	OCI머티리얼즈	-2,889
한국사이버결제	-3,871	리노공업	-2,38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4,941		-4,067 -9,008
은행		-1,010		-3,915 -4,925
의약품		4,329		6,343 10,672
현대차		-7,991		-35,737 -43,728
KCC		-1,665		-37,087 -38,752
NAVER		-8,018		-3,790 -11,808
현대위아		-4,289		-5,434 -9,723
삼성중공업		-3,294		-5,024 -8,318
하나금융지주		-3,954		-4,154 -8,108
삼성엔지니어링		-1,926		-3,816 -5,743
SK가스		-460		-4,753 -5,214
기업은행		-1,061		-3,914 -4,975
GKL		-2,777		-9 -2,78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서비스		-602		-1,097 -1,699
미분류		-711		-888 -1,599
연구,개발		-193		-353 -546
이오테크닉스		-2,854		-935 -3,789
휴온스		-1,618		-16 -1,634
솔브레인		-87		-1,399 -1,487
씨케이에이치		-635		-695 -1,330
한국사이버결제		-713		-595 -1,308
삼화네트웍스		-199		-982 -1,181
차이나그레이트		-14		-861 -875
SK브로드밴드		-683		-131 -813
삼천당제약		-181		-549 -730
바이로메드		-229		-499 -72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중공업	627	14,755	
대한항공	131	5,201	
삼성테크윈	147	5,187	
삼성엔지니어링	89	4,772	
삼성전자	4	4,378	
아모레퍼시픽	2	4,108	
NAVER	5	3,715	
한라비스테온공조	76	3,6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게임빌	59	7,469	
컴투스	28	3,815	
파라다이스	62	1,714	
인바디	49	1,433	
씨젠	21	1,059	
리젠	460	992	
서울반도체	54	956	
넥슨지티	57	88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995	6,044,306	
POSCO	5,444	1,608,708	
SK하이닉스	23,747	1,122,043	
현대중공업	7,455	875,918	
현대차	5,099	851,591	
신한지주	16,088	792,355	
LG전자	12,048	757,821	
NAVER	939	740,61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7,306	695,702	
CJ E&M	855	551,342	
다음카카오	3,605	508,634	
위메이드	1,232	246,144	
파라다이스	8,692	239,894	
서울반도체	11,938	207,724	
컴투스	1,355	180,841	
이오테크닉스	740	80,02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운수장비	6,731	금융업	-5,788
섬유,의복	1,459	기계	-3,453
보험	1,206	의료정밀	-2,939
삼성중공업	5,477	우리금융	-5,347
삼성테크윈	2,403	한진해운	-3,280
팬오션	2,105	두산중공업	-2,980
한화케미칼	1,998	미래산업	-2,135
쌍방울	1,048	SK증권	-1,138
삼성엔지니어링	831	메리츠증권	-1,012
한진중공업	723	SK하이닉스	-1,009
대우조선해양	675	케이씨텍	-772
제일기획	649	웅진씽크빅	-731
한화생명	581	한화	-69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운송장비,부품	853	계약	-293
반도체	838	환경	-278
도매	761	정보기기	-203
성우하이텍	832	파트론	-402
서울반도체	474	로만손	-377
차이나그레이트	384	코엔텍	-305
파인테크닉스	326	KH바텍	-253
루멘스	323	셀루메드	-246
인터파크	287	시그네틱스	-221
포비스티앤씨	280	이트론	-221
크루셜텍	275	크리스탈	-215
대아티아이	261	이화전기	-208
판타지오	260	에스코넥	-20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외국인	6,155.5	698.6	1,026.5	-32.7	240.2	375.6	385.5	58.0
기관계	-2,680.1	828.8	458.7	168.4	70.7	6.9	142.5	70.2
(투신)	-1,548.5	348.9	101.5	55.8	8.1	8.9	30.6	-1.9
(연기금)	3,911.9	-94.6	81.6	35.1	4.4	12.0	14.9	15.3
(은행)	-2,197.8	-14.4	-16.0	-11.4	-1.3	-1.7	-1.5	-0.1
(보험)	1,003.2	136.6	28.0	18.8	-5.7	-2.5	16.3	1.1
개인	-1,208.7	-1,264.1	-766.9	-177.5	-292.5	-58.2	-89.2	-149.5
기타	-2,266.7	-263.3	-718.3	41.8	-18.3	-324.2	-438.9	21.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11/14(금)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KOSPI	1,825.7	1,997.1	2,011.3	1,945.1	1,943.6	1,967.0	1,966.9	1,958.0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433.8	15,885.5	15,735.6	15,256.7	15,978.7
(증감액)	1,996.5	3,611.7	334.1	-154.0	451.7	-149.9	-478.9	722.0
(회전율)	34.2	26.7	29.9	46.0	38.6	38.3	44.6	43.0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92.6	494.9	-385.4	-543.8	462.4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118.9	5,129.5	5,152.9	5,145.7	5,111.1
미수금	1,877.0	1,241.0	929.0	115.4	117.8	184.6	139.8	119.0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14(금)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전체 주식형	79,129	-5,274	331	110	-12	52	79	-12
(ex. ETF)		-3,929	292	150	19	58	-2	-45
국내 주식형	62,308	-2,808	562	121	-11	51	108	8
(ex. ETF)		-1,465	521	160	22	57	27	-24
해외 주식형	16,821	-2,466	-231	-10	-1	1	-29	-21
(ex. ETF)		-2,464	-229	-10	-3	1	-29	-21
주식 혼합형	10,846	118	-128	-2	-2	-21	-30	-12
채권 혼합형	26,450	2,307	-677	-506	-38	-33	63	-3
채권형	70,517	10,012	2,954	-827	880	837	106	1,105
MMF	97,283	29,710	2,150	-313	-1,084	-370	-108	-3,11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한 국	6,154	625	1,901	-30	219	338	346	52
대 만	12,346	2,309	975	-171	102	429	328	115
인 도	15,468	1,509	171	123	2	37	-	-
인도네시아	4,275	302	9	36	20	36	-36	-
태 국	-377	208	-47	-9	44	15	-11	-
남아공	2,492	-599	-85	-106	-57	-44	-35	-
필리핀	945	162	156	5	14	28	116	-7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11/14(금)	11/17(월)	11/18(화)	11/19(수)	11/20(목)	11/21(금)
회사채 (AA-)	3.29	2.52	2.51	2.50	2.50	2.48	2.48
회사채 (BBB-)	8.98	8.32	8.31	8.30	8.30	8.28	8.28
국고채 (3년)	2.86	2.20	2.19	2.18	2.22	2.16	2.16
국고채 (5년)	3.23	2.41	2.39	2.37	2.37	2.35	2.35
국고채 (10년)	3.58	2.77	2.76	2.75	2.74	2.72	2.73
미 국채 (10년)	2.97	2.34	2.34	2.32	2.36	2.34	-
일 국채 (10년)	0.74	0.50	0.49	0.51	0.48	0.47	-
원/달러	1,055.40	1,100.50	1,093.90	1,099.00	1,106.30	1,115.10	1,113.80
원/엔	1,003.99	943.91	940.34	941.97	940.09	946.29	945.18
엔/달러	105.12	116.59	116.33	116.67	117.68	117.84	117.84
달러/유로	1.38	1.24	1.25	1.25	1.25	1.26	1.26
DDR3 1Gb (1333MHz)	1.37	1.39	1.39	1.39	1.39	1.39	-
DDR3 2Gb (1333MHz)	2.54	2.23	2.23	2.23	2.23	2.23	-
NAND Flash 16Gb (MLC)	3.43	2.31	2.30	2.30	2.30	2.30	-
CRB 지수	280.17	267.44	268.07	266.48	267.05	268.80	-
LME 지수	3,182.9	3,103.9	3,109.9	3,080.7	3,106.2	3,114.7	-
BDI	2,277	1,256	1,264	1,296	1,306	1,332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75.82	75.64	74.61	74.58	75.58	-
금 (달러/온스)	1,189.10	1,169.00	1,182.50	1,192.75	1,196.00	1,190.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7	18	19	20	21
美> 10월 광공업생산 MoM (-0.1%, 0.2%, 0.8%) 中> 후강통 시행 日> 3분기 예비 GDP 연간화 QOQ (-1.6%, 2.2%, -7.3%)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日>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실적발표 美 홈데포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100.9만, 102.5만, 103.8만) 10월 FOMC 의사록 공개 실적발표 美 타겟, 스테이플스	美> Mester 연준이사 연설 10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YoY (1.8%, 1.7%, 1.7%) 10월 기존주택매매 (526만, 515만, 517만) 10월 선행지수 (0.9%, 0.6%, 0.8%)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전망 (40.8, 18.5, 20.7) 유럽> 11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0.4, 50.8, 50.6) 中> 11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50.0, 50.2, 50.4) 실적발표 美 베스트바이	실적발표 美 갭, 로스
24	25	26	27	28
	美> 3분기 GDP 연간화 QoQ (n/a, 3.3%, 3.5%) 3분기 GDP 물가지수 (n/a, 1.3%, 1.3%) 11월 소비자대지수 (n/a, 95.8, 94.5) 유럽> EC OECD 경제전망 발표 독일> 3분기 최종 GDP SA QoQ (n/a, 0.1%, 0.1%)	美> 10월 내구재주문 (n/a, -0.6%, -1.1%) 10월 운송재외 내구재주문 (n/a, 0.4%, -0.1%) 10월 개인소비지수 (n/a, 0.3%, -0.2%) 10월 신규주택매매 (n/a, 47.0만, 46.7만)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n/a, 1.0%) 11월 시카고 구매자지수 (n/a, 63.0, 66.2) 11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90.0, 89.4)	韓> 10월 경상수지 (억 달러) (n/a, n/a, 762.5) 유럽> 11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1.6)	韓> 10월 광공업생산 MoM (n/a, 0.8%, 0.1%) 유럽> 11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3%) 日>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3.0%, 3.2%) 10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2.9%, -0.5%)
12/1	2	3	4	5
韓> 11월 무역수지 美> 11월 최종 마켓 제조업 PMI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총 자동차 판매 유럽> 11월 최종 마켓 제조업 PMI 中> 11월 HSBC 제조업 PMI 11월 경제통계국 제조업 PMI 日> 11월 자본지출 YoY 11월 자동차 판매 YoY	韓> 11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日> 11월 본원통화	美> 11월 ADP 취업자 변동 유럽> 3분기 최종 GDP QoQ 中> 11월 HSBC 서비스 PMI 11월 HSBC 종합 PMI 11월 경제통계국 서비스 PMI	韓> 3분기 최종 GDP 유럽> ECB 기준금리 결정	美> 11월 실업률 11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日> 10월 잠정 선행지수 CI 10월 잠정 동행지수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